

## 에너지관리공단, 온실가스 가이드 배포

에너지관리공단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온실가스 기업 인벤토리를 구축하는데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업종별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석유화학 및 정유기업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기업 활동으로 인해 배출되는 모든 온실가스를 파악해 기록, 산정, 보고하는 온실가스 관리시스템으로 기업 내부의 직접·간접적인 온실가스 배출원 및 각각의 배출량을 산출해 리스트를 작성하는 시스템이다.

기업들은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기 위해 인벤토리를 구축해왔으나 국제기준에 맞는 업종별 배출량 산정지침이 없어 비용은 많이 드는 반면,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에너지관리공단이 개발한 가이드라인은 석유화학과 정유, 시멘트, 제지, 유리, 비철금속, 도로, 철도, 항공, 해운, 반도체, 철강, 발전 등 13개 업종별로 산정지침을 마련해두고 있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사업장의 기기와 사용되는 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할 수 있는 웹 프로그램(GEIS)도 구축했다.

웹 프로그램은 홈페이지([geis2.kemco.or.kr](http://geis2.kemco.or.kr))의 다운로드 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며 업종별 가이드라인은 기업체와 업종별 협회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9/01/08>